

2018년 7월 17일

#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종목별 차별화 속에 혼조 마감 므누신 재무장관, “이란산 원유 수입관련 제재 일부 면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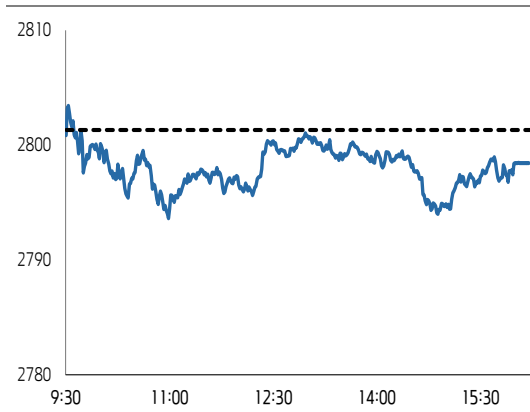
### 국제유가 급락

유럽증시는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에너지 및 원자재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업종별 차별화속에 혼조 마감. 금융주는 장단기금리차가 25bp 내외의 등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BOA 가 양호한 실적을 보인 데 힘입어 상승. 에너지주는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한 여파로 부진. 한편, 2 분기 실적발표가 시작된 이후 89%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 했으나, 예견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등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다우 +0.18%, 나스닥 -0.26%, S&P500 -0.10%, 러셀 2000 -0.50%)

국제유가(WTI)는 4.2% 급락하며 68 달러까지 하락. 미 므누신 재무장관이 “동맹국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하루아침에 단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면제할 것” 이라고 언급하자 매물 출회. 이는 지난 7 월 11 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란 제재 관련 일부 면제 가능성 언급 했었기에 미 정부의 대 이란 제재의 일부 완화 가능성 부각. 한편, 74 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던 WTI 는 트럼프 대통령이 7 월 5 일 OPEC 에게 국제유가를 ‘당장’ 내리라고 언급 한 이후 10%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제유가 하락의 또 하나의 요인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6 월 합의했던 원유 생산 쿼터를 넘어 생산을 늘리면 안 된다고 경고 한 부분도 영향. 시장 참여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쿼터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란도 증산을 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최근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평균 200 만 배럴 증산을 요구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란의 증산 가능성이 부각. 한편, EIA(미 에너지 정보청)는 미국 세일 오일 기업들의 8 월 산유량이 7 월보다 14 만 3 천 배럴 증가한 하루 747 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는 등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 더불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부담. 지난 주 IEA 등 주요 기관들이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을 제기 했었기에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301.99	-0.39	홍콩항셍	28,539.66	+0.05
KOSDAQ	825.71	-0.26	영국	7,600.45	-0.80
DOW	25,064.36	+0.18	독일	12,561.02	+0.16
NASDAQ	7,805.72	-0.26	프랑스	5,409.43	-0.36
S&P 500	2,798.43	-0.10	스페인	9,716.90	-0.18
상하이종합	2,814.04	-0.61	그리스	765.71	+0.50
일본	22,597.35	휴장	이탈리아	21,822.96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넷플릭스 시간외 급락

BOA(+4.31%)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전망 또한 우호적으로 제시하자 상승 했다. 더불어 축소되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줬다. JP모건(+3.97%), 씨티그룹(+3.67%), 웰스파고(+2.94%) 등 여타 금융주도 동반 상승 했다. 아마존(+0.52%)은 프라임 데이 시작되자 상승 했다. 유나이티드항공(+0.22%), 아메리칸 에어라인(+0.43%) 등 항공주는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 했다.

엑손모빌(-0.98%), 셰브론(-0.85%), 코노코필립스(-1.97%)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넷플릭스(+1.18%)는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급락 했다. 이는 2분기 가입자 수가 시장 전망치인 620만명 증가가 아니라 515만명에 그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결과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500만명 증가 전망 했으나 450만명 증가에 그쳤고, 미국내 가입자 수 또한 예상보다 낮았다. 현재 시간외로 13% 넘게 급락 하고 있다. FANG 기업들도 시간외로 1% 가까이 하락 중이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01%	대형 가치주 ETF	+0.10%
에너지섹터 ETF	-1.18%	중형 가치주 ETF	-0.33%
소매업체 ETF	+0.20%	소형 가치주 ETF	-0.36%
금융섹터 ETF	+1.78%	배당주 ETF	-0.35%
기술섹터 ETF	-0.23%	변동성 ETF	-0.70%
소셜 미디어업체 ETF	-0.35%	대형 성장주 ETF	-0.30%
인터넷업체 ETF	0.00%	중형 성장주 ETF	-0.45%
리츠업체 ETF	-0.55%	소형 성장주 ETF	-0.60%
주택건설업체 ETF	-0.42%	신흥국 고배당 ETF	-0.46%
바이오섹터 ETF	-0.7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7%
헬스케어 ETF	-0.61%	하이일드 ETF	-0.08%
곡물 ETF	-0.17%	물가연동채 ETF	-0.27%
반도체 ETF	-0.30%	Long/short ETF	-0.3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7.42	-1.18%	-1.85%	+1.81%
소재	364.13	-0.80%	-1.44%	-2.75%
산업재	617.22	-0.44%	-0.02%	-2.30%
경기소비재	898.17	+0.19%	+1.11%	+0.57%
필수소비재	538.96	-0.51%	+0.92%	+1.67%
헬스케어	1,004.65	-0.69%	+0.25%	+1.49%
금융	455.69	+1.80%	+0.62%	-0.14%
IT	1,271.25	-0.35%	+1.13%	+0.70%
통신	149.64	+0.47%	+0.31%	+1.69%
유틸리티	266.11	-0.15%	+1.85%	+5.92%
부동산	202.52	-0.59%	-0.51%	+3.8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업종별 차별화 장세 전망

MSCI 한국 지수는 0.05% MSCI 신흥 지수도 0.055%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867 계약) 여파로 0.35pt 하락한 297.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가 이란 제재 완화 및 미국 산유량 증가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 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불어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으나 가입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내놓자 시간외로 13% 넘게 급락하고 있으며, 여타 기술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향후 전망을 상향 조정하거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기업과 업종은 상승했으나, 향후 전망에 부정적인 요인이 나오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 파월 연준의장의 통화정책과 경제전망 관련 의회 청문회가 있다. 지난 12 일 파월 연준의장은 의장이 된 이후 첫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했었다. 더불어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 했었다. 파월 의장의 청문회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대 된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주식시장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제한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매판매 전월 보다 둔화

미국 6 월 소매판매는 예상치와 부합된 전월 대비 0.5% 증가 했다. 다만 지난달(mom +1.3%) 보다는 둔화되었다. 에너지 및 운송을 제외한 수치는 0.3% 증가 했다.

7 월 뉴욕 연은 지수는 지난달(25.0) 보다 둔화된 22.6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치(22.0) 보다는 양호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 가능성과 이란의 증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이 또 다시 보도 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EIA는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7월 보다 하루 14만 3천 배럴 증가한 하루평균 747만 배럴의 산유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이 결과 국제유가는 4.2% 급락하며 68.06달러로 마감 했다.

달러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상승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표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분기에만 여타 환율에 대해 5% 넘게 강세를 보인 점도 하방 압력을 높였다. 한편, 남아공 란드화,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 결과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2년물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6%를 상회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지난주 한때 장단기 금리차가 25bp 이하로 내려갔었으나, 오늘은 소폭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미국이 WTO에 중국, EU, 캐나다 등의 대 미국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해 고발하자 무역분쟁 이슈가 다시 높아지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경제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자 달러 강세 여파로 소폭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의 산업생산이 둔화되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1% 하락 했으며, 철근도 0.7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8.06	-4.15	-7.84	Dollar Index	94.494	-0.19	+0.44
브렌트유	71.84	-4.63	-7.98	EUR/USD	1.1715	+0.26	-0.31
금	1,239.70	-0.12	-1.58	USD/JPY	112.26	-0.11	+1.27
은	15,812	-0.02	-2.03	GBP/USD	1.3240	+0.14	-0.15
알루미늄	2,055.00	+1.18	-3.11	USD/CHF	0.9966	-0.51	+0.51
전기동	6,192.00	-0.72	-3.10	AUD/USD	0.742	-0.05	-0.63
아연	2,474.00	-4.03	-8.54	USD/CAD	1.3136	-0.18	+0.22
옥수수	355.25	+0.14	-3.20	USD/BRL	3.8646	+0.37	-0.22
밀	488.50	-1.71	-3.84	USD/CNH	6.7006	-0.16	+1.17
대두	845.75	+1.38	-3.01	USD/KRW	1129.20	+0.51	+1.53
커피	110.30	+0.36	-4.13	USD/KRW NDF 1M	1127.65	-0.17	+1.3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853	+2.56	-0.37	스페인	1.276	+1.60	-1.40
한국	2.543	-1.40	-1.40	포르투갈	1.769	+4.20	-0.20
일본	0.040	0.00	0.00	그리스	3.838	+0.90	-0.40
독일	0.363	+2.30	+6.30	이탈리아	2.574	+2.80	-8.80